

전주형 창의교육으로 청소년 살린다

시, 내달부터 2학기 걸쳐 야호학교 운영 총 100여명 학생 참여... 인재 양성 기대

전주시가 청소년을 살리는 전주형 창의교육인 '야호학교'를 운영한다. 야호학교는 그간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해 '놀 권리'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이다.

전주시는 오는 7월 8일부터 전주 종합경기장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1층에 마련되는 거점공간에서 청소년들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기회를 주고, 도전을 통한 실패와 작은 성공의 경험으로 미래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기주도력을 키우기 위한 야호학교를 개강한다.

청소년과 학부모 등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야호학교는 지난 1년여간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준비했다.

시는 올해 야호학교를 7~8월 중 방과 후 시간과 주말, 여름방학 기

간을 이용한 8주간의 1기 프로그램과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방과 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12주 과정의 2기 프로그램 등 총 2회기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며, 각 회기별로 50명씩 총 1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게 된다.

야호학교에는 또 청소년 관련 학과 전공자와 교원자격증,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청소년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20명으로 구성된 '빅올 감사단'이 참여해 학생들의 안전지도도를 맡게 된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야호학교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변화된 모습과 성장 등 운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프로젝트 발표회도 열 계획이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26일 야호학교의 거점공간이 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야호학교 운영 준비사항과 시설 등을 점검했다.

시는 다음달 초까지 시설공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26일 야호학교의 거점공간이 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야호학교 운영 준비사항과 시설 등을 점검했다.

집기구입 등 거점 공간 환경정비를 모두 마친 후, 8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야호학교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된 전주형 창의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역을 통해 전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교육 운영 프로그램 기본

모형과 매뉴얼 등을 마련했다.

시는 야호학교 운영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 인재를 양성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청소년기 아이들이 인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

한 지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야호학교는 아이들의 영혼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마음의 자양분과 창의와 도전정신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또한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서 인내하고 지켜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사기범행 대상 왜 못찾아"... 친구살해 4명 구속영장 신청

대출사기 범행대상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집단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달아난 조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조모씨 등 4명은 지난 22일 오후 9시에 부안군 격포면 한 펜션에서 친구 박모(20,남)씨를 대출사기 범행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피해자 박모씨는 사건 직후 자수한 이모(19,남)군, 최모(21,남)씨와 조모씨와 함께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전주의 한 모텔에서 잡힌 김모(20,남)씨는 함께 대출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22일 박모씨를 집단폭행 한 후 이튿날 23일 군산의 한 원룸에 옮겨 방치해 박모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에는 폭행 치사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이들에게 친구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숨진 친구를 9시간 넘게 방치했다는 점 등에서 고의성이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들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레지오넬라증 감염 '주의보'

전주시가 최근 이른 무더위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레지오넬라증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제3군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냉방기 사용이 많은 6~9월에 주로 발생하며, 임상증상으로는 전신관태감, 두통, 식욕부진, 근육통과 건성 기침, 오한, 고열, 발열, 흉통 등 급성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조기에 치료하면 쉽게 완쾌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5~30%의 치명률을 보이므로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9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냉방기와 목욕탕, 분수대 등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레지오넬라증 사전예방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대상은 대형건물 8곳과 목욕탕 13곳, 분수대 4곳, 기타 15곳 등 모두 40개소다.

보건소는 해당 시설의 냉각탑수와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 탕배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 분수대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게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런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통해 레지오넬라증에 사전에 예방해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관 될 것"

한지센터, 다양한 연구개발 수행... R&D기관 핵심역할 특목

전국 최초의 한지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가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바야흐로 R&D(연구개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지관련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10년 10월 18일 설립된 한지센터는 7년여 동안 각 부처별로 다양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해 왔다.

한지센터는 전통산업의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미래전략기술에 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가운데, 전통한지 원천기술 분야의 과학기술력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에 매진, 한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특히 센터가 보유한 기초연구 역량과 응용기술 개발 역량, 그리고 전주

시의 정책 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만 17억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 육성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등 9개의 지방비 연구개발 과제들을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전통공예 소재의 물성지표 발굴 및 측정방법 연구'라는 과제를 제출,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4억원 씩 총 12억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700여개에 달하는 전통공예 소재 물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분석 측정방법을 표준

화하게 된다. 한마디로 전통 소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질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표준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전통소재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는 작업들을 펼치게 된다. 특히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지센터는 지난 2013년 KOLAS 인정 이래 4년이 지난 올해 다시 한 번 인정기구로 갱신되며 명실 공히 한지 관련 국제 공인시험 대표기관으로 명문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오대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앞으로 기술 트렌드에 따라 미래기술을 선점하는 작업들을 펼칠 계획"이라며 "한지센터가 한지 관련 R&D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신임 덕진경찰서장에 함현배 총경

전주덕진경찰서 제30대 서장에 함현배 총경(사진)이 취임했다.

신임 함 서장은 26일 별도의 취임식 행사없이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권력의 지킴이가 아니라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또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만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감지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단호한 법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법 집행에 있어 인간을 존중



로 경찰에 임명돼 제주서부경찰서장, 제주청 홍보담당관, 경남 고성경찰서장, 전북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완산경찰, 치안성과평가 분석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26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각 과·계장 및 지구대(파출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치안성과평가 분석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17년 상반기 치안 종합성과 추진결과와 분석을 통해 하

반기 각 기능별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황수 서장은 "경찰치안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모두 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으므로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국제문화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